

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  
2024. 1. 31(수) - 2. 5(월)

# 도가思像

2人展

## 고은진 + 김경원

Ko Eunjin Kim Gyeong Won

Duo Exhibition

---

## 목차

---

## 작가소개

고은진	4
김경원	8

---

## 작품

공동작업	11
고은진	21
김경원	35

---

## 미술평론

평론가 소개	50
평론	51

고은진 & 김경원 도가想像 2人展

## 작가소개

KO Eunjin

**고은진**

# 고은진 Ko Eunjin



상명대학교 미술대학 패션디자인 졸업  
런던 LCIBS 마케팅 디플로마

## AWARDS

2022 파리국제아트쇼 우수작가상  
2022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우수상  
2021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특별상  
2020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장려상  
2019 충청북도공예품대전 특선  
2018 충청북도공예품대전 특선  
2018 대한민국공예대전 특선  
2017 충청북도공예품대전 장려상  
2017 대한민국공예대전 장려상

## RESIDENCY

2024 청주시 한국공예관 입주작가

## SOLO SHOWS

2022 제6회 고은진 개인전 “우리는 가능존재”, 갤러리라메르, 서울  
2021 제5회 고은진 개인전 “동떨어진 시선”, 숲속갤러리, 청주  
2020 제4회 고은진 개인전 “이울배반”, 한국공예관, 청주  
2020 제3회 고은진 개인전 “이울배반”, 31갤러리, 서울  
2019 제2회 고은진 개인전 “Shelter”, Mithila Yain Gallery, 카트만두, 네팔  
2018 제1회 고은진 개인전 “Recollection (가족 위에 그린 기억)”, 동부창고, 청주

## CONTACT

작업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노동1길 26-1  
E-mail : [lofoko@naver.com](mailto:lofoko@naver.com)  
Mobile: 010 5459 8891

## GROUP SHOWS

2024 고은진,김경원 '도가사상' 2인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3 GIAF 더 그랜드인터내셔널 아트페어, 신라호텔, 서울  
2023 AFID 아트페어 대구, 대구엑스코  
2023 대한민국·베트남 수교30년 기념교류展, 하노이 베트남미술협회 미술관, 베트남  
2023 작가들의 사물전, 2023청주공예비엔날레, 동부창고, 청주  
2023 한국,네팔 컨템포러리 아트&크래프트 국제교류展,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23 울크래프트 특별기획초대전, 청남대 호수갤러리, 청주  
2023 제3회 Art몬드리안초대展, 마루아트센터, 서울  
2023 International Art Camp & Exhibition, Janita Tample, 자낙푸르, 네팔  
2022 제36회 충북공예가회 정기전, 한국공예관 갤러리, 청주  
2022 Art 몬드리안 기획초대전 22, 가온갤러리, 고양  
2022 양데팡당 코리아아트페어  
2022 프랑스 파리 국제아트쇼 귀국전, 아트벤트갤러리, 서울  
2022 프랑스 파리 국제아트쇼, Galerie BDMC, 파리  
2022 제2회 ART 몬드리안展,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21 갤러리 아트벤트 3주년 기획초대전, 갤러리아아트벤트, 서울  
2021 Pink Art Fair, 인터컨티넨탈서울 COEX 호텔, 서울  
2021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21 "제주 유채꽃으로 물들다" 展,, 제주국제미술관, 제주  
2021 Art for Cause, 인도 Bhopal 국제 온라인 선정작가전  
2020 본사랑미술관 송년작가초대展, 본사랑미술관, 인천  
2020 제주가을바람전, 제주국제미술관, 서귀포  
2020 SEKAKI 인터내셔널 아트쇼, KL CITY Gallery, 쿠알라룸프, 말레이시아  
2020 제34회 충북공예가회"신명나는공예", 청주문화관, 청주  
2020 여름향기展, 메이준갤러리, 서울  
2020 본사랑미술관 힐링초대작가 展, 본사랑미술관, 인천  
2020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2020 BAMA), BEXCO, 부산  
2020 Pink Art Fair, 인터컨티넨탈서울 COEX 호텔, 서울  
2020 PLAS 조형아트서울, COEX, 서울  
2020 충북 공예의 어제와 오늘, 한국공예관 전시실 3관,5관, 청주  
2020 'Coloured with Art', Mithila Yain Art Gallery, 카트만두,네팔,우젠, 비디야나가르 (네팔,인도)  
2019 한국, 남아시아 현대미술교류전, 청주교육대 미술관, 청주  
2019 Dhanbad Art Fair, Dhanbad 단바드, 인도  
2019 제33회 충북공예가회 정기전, 청주문화관, 청주  
2019 네팔+한국 Friendship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Mithila Yain Art Gallery, 카트만두, 네팔  
2019 호주 시드니 초청전 '선비의식탁', 시드니 문화원+ADC센터 (문체부 주관), 시드니 (호주)  
그 외 다수의 단체전 참여

## ARTIST'S STATEMENT

작품에 반영된 빛나는 순간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처럼 나를 감싸고 있다. 이 미소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각인시킨다. 어머니가 자연으로 돌아간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나는 작업을 통해 나와 자연의 소통을 시작했고, 내 안의 물결치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가죽 조각을 붙이고 아크릴의 선명한 색과 어우러지는 작업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강한 아크릴의 색과 가죽의 자연스러운 질감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존하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나의 작품 속 각 가죽조각들은 고유한 존재이었다. 삶과 죽음을 통과한 가죽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구현되었고 다양한 질감과 표면은 각기 다른 우리네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펼쳐지게 한다. 가죽의 흔적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모험, 성장의 자국들로 가득한가 싶다. 삶이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언젠가 어머니와 다시 자연으로 재회할 수 있다는 밝은 상상을 해본다. 삶의 순환과 연속성을 생각하자니 나와 자연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새로운 차원 속 존재임으로 들킨 가죽은 나의 작품 속에 그리움의 얼굴로 풍경으로 살아간다.

The radiant moments reflected in the artwork embrace me like the warm smile of my mother. This smile deeply makes me realize how precious life is and how grateful I should be. It has been a decade since my mother returned to nature. Through my creative process, I initiated a dialogue with myself, peering into the undulating depths of my inner self.

The process of attaching leather fragments and harmonizing them with the vibrant colors of acrylic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ity. The bold colors of acrylic and the natural textures of leather prompt contemplation on how we communicate and coexist with nature. Each leather piece in my artwork possesses a unique existence. Leather, having traversed life and death, has manifested as a new dimension of existence, and its diverse textures and surfaces unfold like the distinct lives we lead. Observing the traces on the leather, one is reminded of the richness of experiences, adventures, and imprints of growth. The feeling that life is cyclical sparks hopeful visions of reuniting with my mother in the embrace of nature. Contemplating the cyclical nature of life,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bond between myself and nature is inseparable.

The leather, now revealed as a presence in a new dimension, lives within my artwork as a landscape with the countenance of longing.

**김경원**

**Kim Gyeongs-won**

# 김경원 Kim Gyeong-won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도자전공 졸업

## AWARDS

제35회 충북미술대전 공예부문 우수상  
백제문화예술대전 백제이미지예술 특별상  
2006충북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장려상

## SOLO SHOWS

2022 7회 개인展‘Sonata of GoldLight’,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18 6회 개인展‘달타냥(Go to the moon!)’, 동부창고34갤러리, 청주  
2017 5회 개인展‘금별이의 어깨를 두드려!’, 장수미술관, 장수  
2015 4회 개인展‘공간의빛’,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2013 3회 개인展‘Moonlight Shadow’,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2011 2회 개인展‘닭과 달걀의 잔혹사’, 한국공예관, 청주  
2007 1회 개인展‘도자장신구’, 금강아트센터, 공주

## GROUP SHOWS

2023 작가들의 사물전展,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  
2023 제37회충북공예가협회  
“KOREA, NEPAL Contemporary art & craft exhibition” 展,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22 공예주간 “공예로 二工八工번지”,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22 제36회충북공예가협회“공예의 생활화, 생활의 공예화”展, 한국공예관, 청주

## ARTIST'S STATEMENT

나의 작업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

흙이 주는 자유로움과 때로는 묵직함, 그것들을 주로 활용한다.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작품제작 과정은 매 작업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작품의 진행과정에 재료나 형태나 그 때 그 때 바뀌는데 애초에 구상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는다. 항상 변수는 존재하는 법, 유연하게 그 재료와 형태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이 나의 작업 방식이다.

금은 호화의 상징, 부귀 영화를 대변하는 물질, 현대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한다. 금의 반짝이는 성질은 인간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물질,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연금술을 발달시켰고, 금속을 제련하여 더 많은 것은 누리고자 했다. 결국 달성되지 못했고 도금일 뿐, 진짜 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가?

그냥 물질일 뿐인 이 금을 숭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욕망을 흙덩이에 발라 구워 만들어 냈다.

도예만이 갖는 색깔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흙의 물성에는 따뜻한 느낌이 있다. 나는 이 따뜻함이 좋다.

There is no fixed way I work.

The freedom and sometimes heavyness of the soil, they are mainly used.

Since there are no set rules, the process of creating each piece varies slightly with every work. I don't insist on sticking to the initially conceived idea throughout the progress of the artwork. Variables always exist, and my working method involves flexibly adapting to changes in materials and forms.

Gold is said to be a symbol of luxury, a substance representing rich movies, and a representative safe asset of modern times. The sparkling nature of gold is fascinating the human mind. An immutable substance that does not change over time, human desire for gold, developed alchemy, and tried to enjoy more by smelting metal. In the end, it was not achieved and it was only a plating, and it did not produce real gold.

What is my view of gold?

Aren't you admiring this gold, which is just a material?

This desire was applied to the dirt and baked.

I believe that ceramics have distinct colors. There is a warm feeling in the nature of clay. I like this warmth.

# 공동작품

Ko Eunjin & Kim Gyeong-won



## 도가의 어울림\_1

2023, Leather, Porcelain, 300x300x12mm



## 도가의 어울림\_2

2023, Leather, Porcelain, 300x300x12mm



### 도가의 어울림\_3

2023, Leather, Porcelain, 300x300x12mm



## 도가의 숨결\_1

2023, Leather, Porcelain, Ø445x80mm



도가의 숨결\_2

2023, Leather, Porcelain, Ø393x80mm



### 도가의 숨결\_3

2023, Leather, Porcelain, Ø393x80mm



도가의 숨결\_4

2023, Leather, Porcelain, Ø230x80mm



## 도가풍경

2023, Leather,Acrylic,Porcelain, 300x300x12mm 2 pieces



## 도가풍경

2023, Leather,Acrylic,Porcelain, 300x300x80mm 2 pieces

KO Eunjin

## 고은진 작품



자연의 공명1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72.8x60.5cm



자연의 공명2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acrylic on panel, 45.5x52.8cm



자연의 공명3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72.8x50cm



자연의 공명4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50x50cm



자연의 공명5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50x50cm



자연의 공명6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50x50cm



자연의 공명7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50x50cm



자연의 공명8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acrylic on panel, Ø60cm



자연의 공명9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acrylic on panel, Ø40cm



자연의 공명10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Ø25cm



자연의 공명11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Ø15cm



자연의 공명12 (resonance of nature)

2023, Leatheryarn, acrylic on panel, Ø10cm

Kim Gyeongs-won

**김경원 작품**



금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I

2023, porcelain, Ø400mm



금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II

2023, porcelain, Ø400mm



금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Ⅲ

2023, porcelain, Ø400mm



금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Ⅳ

2023/ porcelain/ Ø350mm



금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V

2023, porcelain, 300\*150\*2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 I

2023, porcelain, Ø35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 II

2023, porcelain, Ø350mm



###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III

2023, porcelain, 200\*300\*10mm, 150\*300\*1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Ⅳ

2023, porcelain, 3000\*150\*10mm , Ø20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 V

2023, porcelain, Ø35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Ⅵ

2023, porcelain, Ø350mm



금을 얻거나 바라는 것 VI

2023, porcelain, Ø280mm



학습된 소유욕

2023/ porcelain/ Ø350mm

**영웅**

**SEUNG HYUN AIN**

# 안승현 Seung Hyun An

(재)청주시문화사업진흥재단 공예진흥팀장

청주시 한국공예관 학예실장

청주공예 창작지원센터장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총괄

청주 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직지 국제 코리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기념특별전(2010) 기획, 연출 등 다수

## 도가思想의 유전자\_새로운 질문

안승현((재)청주시문화사업진흥재단 공예진흥팀장)

### 과거의 한 시점

시작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가죽은 부드럽고 가벼워 터치하면 온기를 전하듯 손에 닿는 순간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쉽게 변형되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도자는 단단하고 안정된 형태를 가지며,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깨지기 쉽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섬세한 다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가죽과 도자기의 물성은 상호보완도 좋고 어우러지기가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물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번 「도가사상\_도자기, 가죽의 물성을 통한 생각과 형상」 전시를 조화와 절충의 미를 소재로 “위로와 화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시의 취지다. 물성적 차이와 상반되는 특성, 그렇기에 보완적 관계성에서 하나로 결합한다면, 단순 질료적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 연결되어 있는 성질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단지 다른 재료의 결합으로 그간 작업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협업의 필요성을 구체화하는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가는 길이 다르고, 그러니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달랐다. 협업한다는 것은, 협동의 발현은 결국 경쟁에서 이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쟁 안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얻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인가?

공예가의 진 모습 Quercus은 몸부림이다.

고은진 작가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며 가죽을 주 소재로 다루고 있다. 공간의 입체성에서 평면적 화면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가죽은 가공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지만 결국 내적 구성요소를 보호하고 구조체의 최종적 모습으로 보인다. 파편화된 조각을 이어 붙인다. 가죽의 표면은 각기 다른 색, 다른 질감을 갖는다. 가공의 질료가 최대한 자연적 물성으로 회귀할, 기억의 천착하는 시작점이다. 사라져가는 기억의 저장 공간, 오래도록 간직되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틈이 있는 이어진 공간이다. 겹으로 드러난 그림자는 가능하기 어려운 정도의 흔적이다. 화면 안쪽 깊숙한 심연의 어두움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축적된다. 그렇기에 넓은 면적의 가죽을 파편화시키고 이어 붙인다. 시간적, 공간적 기억을 이어가며 아련하기만 한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쓴다.

김경원 작가는 흙의 기본적 속성인 무형에 기반을 둔다. 무형은 형태가 없다. 그러니 정해진 형태가 없다. 무한대의 성형이 가능한 질료다. 모난 부분이 없다. 자유로우나 그것이 더해지고 굳어지면 더 할 수 없는 힘을 갖는다. 자존한 질료다. 더없이 존귀한 흙을 대함에 정해진 정형화된 방식이 없다. 질료적 특성에 합치된 다양한 방식을 보인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작가로서보다는 교육자로서 다양성을 전개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공자의 교육방식을 들지 않더라도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름을 가르쳐야 하니, 작업은 그것을 시도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실험이 아닐지 싶다.

## 앞선 질문

굳이 왜? 흠이어야 하는가?

흠으로 성형하고 불을 이용해 자기화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이유는? 불 온도의 조절로 도기 이전의 토기에 가까운 형태라면, 형태를 잡고 고착화하는 과정의 시간이 다시 시작점으로 갈 수 있다면 하는, 소위 소재가 굳이 자기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관점에서 작품을 설명한다면 말이다. 흠은 생명이다. 지구가 불을 용암을 뿜어내고, 용암이 식으면서 암석이 되었다. 비와 바람과 박테리아 등 단세포 생물에 의해 흠이 되었다. 광물질 속 무기물을 먹이로 단세포 생물 증식되었다. 생명의 진화는 무기물에서 시작한다.

왜? 굳이, 가죽이어야 하는가?

피부와 가죽은 별개다. 가죽은 인간의 기본 요소와 가장 근접한 소재다. 무두질을 기본으로 다양한 쓰임의 형태로 전개된다. 가공의 단계는 보존과 가죽의 특성, 종류를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가공의 단계를 좀 더 확대할 방법은, 기억이라는 테마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예로 ‘몰스킨\_면직물, male<sup>두더지</sup> skin<sup>모피</sup>’을 들 수 있다. 가공의 방식에 따라 다른 소재로 확장할 수 있다면?

## 새로운 질문

전시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교차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행위의 의도는 서로 다른 방식의 삶 속에서 작업의 만남이다.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닐지나 글을 치열하게 써왔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순수하게 작업이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었다. 끊임없이 돌을 올려야만 하는 시지프스(Sisyphus)의 굴레가 작가들의 모습일지언정 서로의 돌을 함께 밀어주는 상황으로 비쳤다.

그렇지만 공동작업을 진행함에 작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위의 명분을 의무동기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 준비를 통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합이 맞아서 하는 전시는 아니었다. 합을 통해서 서로의 길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찾는, 새로운 질문을 얻기 위한 일탈행위였다.

작가가 작업에 사용한 금(안료 포함)은 호화의 상징, 불변의 물질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이 연금술을 발달시켰다. 진짜 금은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일까? 연금술은 진정한 의미는 저렴한 납이나 다른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낮은 수준의 '인간'을 고귀한 '인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금은 엔트로피(entropy)를 거부하는 금속이다. 불변의 금은 절대적 가치, 절대적 신을 상징한다. 우매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연금술은 '창의', '만물의 학문'이다. 이타적 성향의 사람이 창의적이다. 일상과 고착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탈 중심의 시각에서 남을 위할 때 더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내가 아닌 남의 관점에서 남을 위한 사고가 창조와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상생이다. 공예의 가치 중 하나다.

호혜적 이타성은 사회가 처한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는데 대안이 된다. 지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생존본능을 가지고 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온 유전자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는다.

이번 전시를 위한 작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개된 행위였다.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가치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발견이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보고,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상호적 관계가 더 명확해진 호혜적 관계로 진보된 결과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도가사상전은 새로운 질문이다. 결국 관계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새로운 질문의 과정이다. 어쩌면 공예라는 작업의 기본은 관계성에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작업, 끊임없는 질문일 것이다. 처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채  
토  
바  
개  
러  
러  
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